

‘인내’의 명령에서 ‘참지 않음’의 목소리로 - 자일리 아마두 아말의 『참지 않는 여자들』에 나타난 여성의 다성적 주체성*

오 정 숙

(경희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본고는 카메룬 작가 자일리 아마두 아말(Djaïli Amadou Amal)의 『참지 않는 여자들』(2020)을 대상으로, 사헬 지역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무날(munyal)’, 즉 인내의 명령이 여성의 삶과 언어를 어떻게 통제하며, 이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떻게 다성적 주체성을 형성하는지를 고찰한다. 작품에서 ‘무날’은 조혼과 강제 결혼, 부부 성폭력, 일부다처제를 정당화하며 여성에게 복종과 침묵, 희생을 요구하는 젠더화된 규범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아말은 세 여성 인물인 람라, 힌두, 사피라를 동일한 억압의 피해자로만 제시하지 않는다. 람라는 탈주를 통해 자기결정의 의지를 실천하고, 힌두는 지속적인 폭력이 초래한 정신적 붕괴 속에서 광기로 고통과 분노를 표출하며, 사피라는 가부장적 규범을 내면화하고 재생산하면서도 그 내부에 균열을 만들어낸다. 따라서 이 작품의 다성성은 단순히 세 명의 1인칭 화자가 존재한다는 형식적 복수성이 아니라, 하나의 권위적 명령인 ‘무날’이 세 여성의 상이한 경험과 발화를 통해 서로 다르게 재의미화되면서 가부장적 담론의 단일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결국 『무날, 인내의 눈물』에서 『참지 않는 여자들』로의 제목 변화는 ‘인내’라는 규범의 단수성에서 ‘참지 않는 여성들’이라는 주체의 복수성으로의 이동을 상징한다. 아말의 문학은 침묵당한 여성들의 경험을 공적 언어로 전환함으로써 문학이 여성의 주제 회복과 사회적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 자일리 아마두 아말, 『참지 않는 여자들』, 무날, 다성성, 여성 주체성, 사헬 여성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6B5A01003729).

1. 서론

현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문학에서 여성 작가 자일리 아마두 아말(Djaïli Amadou Amal, 1975~)은 사헬(Sahel)¹⁾ 지역 여성들의 삶의 여건과 인권 상황을 내부자의 경험과 언어를 통해 세상에 여과 없이 드러냄으로써 젠더 정치학과 여성 인권 담론의 장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카메룬 최북부 마루아(Maroua)에서 태어난 아말은 17세의 나이에 부모에 의해 50대 남성과의 조혼 및 강제 결혼으로 내몰렸으며, 이후 이어진 두 번째 결혼에서도 극심한 가정폭력과 감금을 경험하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탈출한 당사자이다.²⁾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을 완전히 파괴해 버린 결혼을 강요당해서 우울증과 정신 질환”을 겪었으며, “생존을 위한 치료 과정의 일종이었던 글쓰기에서 치유의 힘을 발견”했고, “침묵 당한 여성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겠다고 결심”하며 작가가 되었다고 고백한다.³⁾

자일리 아마두 아말은 2010년에 첫 소설 『왈란데, 한 남편을 공유하는 법 *Walaande, l'art de partager un mari*』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총 6편의 소설을 출간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참지 않는 여자들 *Les Impatientes*』⁴⁾은 2020년 프랑스 파리에서 출간되었고, 출간 당해 아프

1) 사헬은 세네갈에서 수단까지 뻗어 있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반건조 지역을 일컫는 말로, 10개국(부르키나파소, 기니, 말리, 세네갈, 카메룬, 나이지리아, 니제르, 차드, 감비아, 모리타니아)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https://www.britannica.com/place/Sahel> (검색일: 2026.08.20.)

2) Poblete, Maria(2024), *Djaïli Amadou Amal : Non aux mariages forcés*, Actes Sud, 84-85. 포블레테의 이 작품은 자일리 아마두 아말의 삶을 소재로 한 전기적 소설이다.

3) 자일리 아마두 아말 · 이소훈 · 권서영 · 김지은 (2024), 「젠더 폭력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문학의 힘: 아프리카 페미니스트 문학 작가에게서 듣는 여성학 의제와 국제연대의 방향」, 『한국여성학』 40(4), 48-49.

4) Amadou Amal, Djaïli(2020), *Les Impatientes*, Paris, Emmanuelle Collas (번역본: 자일리 아마두 아말(2023), 장한라 옮김, 『참지 않는 여자들』, 올리시즈). 본문에서 인용되는 쪽수는 프랑스어 판본을 참조한 것이다.

리카 여성 작가로는 드물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공쿠르상 최종 후보에 올랐으며, 프랑스 전역의 청소년 심사위원단이 직접 선정하는 고등학생 공쿠르상(Prix Goncourt des lycéens)을 수상했다. 원래 이 작품은 2017년 카메룬 야운데에서 『무날, 인내의 눈물 *Munyal, les larmes de la patience*』이라는 제명으로 출판되었는데⁵⁾, 전 세계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제목과 내용의 수정을 거쳐 프랑스에서 “새로운 판본 *une nouvelle édition*”⁶⁾으로 출간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제목의 교체 이상으로 읽힐 수 있다. 카메룬 초판 제목이 카메룬 북부의 풀라(Peul/Fulbé) 무슬림 여성에게 요구되는 규범인 ‘무날’(풀라어로 참음, 견딤의 의미)과 그 규범이 만들어내는 ‘인내의 눈물’을 전면에 놓았다면, 프랑스판 제목 『참지 않는 여자들』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는 여성들을 복수형 주어로 내세운다. 즉 의미의 중심이 ‘여성에게 무엇이 명령(요구)되는가’에서 ‘그 명령을 받은 여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이동한다.

『참지 않는 여자들』은 조혼과 강제 결혼, 부부 성폭력, 일부다처제 등 여성의 삶을 규정하는 제도와 관습 속에서 각기 다른 고통을 겪게 되는 세 여성의 삶의 이야기이다. 자일리 아마두 아마의 문제의식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여성 문학이 오랫동안 천착해 온 일부다처제와 여성 인권의 문제를 계승하면서도, 그것을 새로운 서사적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40여 년 전에 세네갈의 마리아마 바(Mariama Bâ)는 『이토록 긴 편지 *Une si longue lettre*』(1979)라는 선구자적 소설에서 일부다처제 치하에서 고통받는 두 여성의 내밀한 목소리를 서간체 형식으로 들려준 바 있다. 이 작품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인 남성들을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객체로 전락시키면서, 여성 연대와 우정의 시선 아래 여성 중심의 강력

5) Amadou Amal, Djaili(2017), *Munyal, les larmes de la patience*, Yaoundé, Proximité.

6) Amadou Amal, Djaili(2020), *Les Impatientes*, op. cit., 판권면. “Le livre est paru à Yaoundé en 2017 aux éditions Proximité sous le titre *Munyal, les larmes de la patience*. C’est une nouvelle édition que nous proposons ici, intitulée *Les Impatientes*.”

한 서사와 비전을 제시하는 혁명성”을 담고 있으며, “일부다처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극한의 고통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첫 아프리카 페미니즘 소설”로 인정받고 있다.⁷⁾ 소설의 주인공이자 친구 사이인 라마툴라이와 아이사투는 각자의 남편들이 아내의 동의 없이 두 번째 어린 아내를 맞이한 상황을 동시에 겪으면서, 라마툴라이는 가정을 지키기로 선택하고 아이사투는 이혼을 선택한다. 마리아마 바는 동일한 일부다처제 상황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두 여성의 내면을 편지라는 서사 형식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여성 주체성이 단일한 형태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자일리 아마두 아말은 마리아마 바의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서사적 참신성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⁸⁾ 바의 작품은 아이사투의 편지 몇 장을 제외하고는 라마툴라이라는 한 여성의 서간적 회고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이 두 여성은 모두 첫 번째 아내로서 일부다처제의 희생양이라는 동질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다. 반면 아말의 소설은 람라(Ramla), 힌두(Hindou), 사피라(Safira)라는 세 여성 화자의 분절된 목소리를 병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남성 중심 가부장제의 단일한 독백주의(monologisme)를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e)이 제시한바 있는 서사학적 다성성(polyphonie)⁹⁾으로 대체한다. 더욱이 작가는 이복 자매이자 둘 다 두 번째 아내로 강제 결혼하게 되는 람라와 힌두, 같은 남편을 공유하는 첫 번째 아내 사피라와 두 번째 아내 람라의 목소리를 1인칭 화법으로 병

7) 오정숙(2023), 「아프리카 여성 문학을 통해 본 일부다처제와 여성 인권: 마리아마 바와 켄 부굴을 중심으로」, 『프랑스어권 문화예술연구』 제86집, 315.

8) 초코테(Tchokothe)는 위 두 작품 사이의 ‘상호-현재성(inter-actualité)’을 ‘무날의 철학’을 통해 고찰하면서 40년이 지나도 여성의 삶의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Tchokothe, Rémi Armand(2021), “Mariama Bâ et Djaili Amadou Amal : Une si Longue Lettre des (Im)patientes,” *HYBRIDA*, 2, 201-224.

9) 미하일 바흐친의 다성성 이론에 따르면, 다성악적 소설은 작가의 단일한 의식에 종속되지 않는 복수의 독립적이고 구별되는 목소리와 의식이 공존하며 서로 대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서사 형식이다. Bakhtine, Mikhaïl(1970), *La Poétique de Dostoïevski*, traduit du russe par Isabelle Kolitcheff, Paris: Seuil, 31-35.

치함으로써, 다중 억압에 대한 여성들의 고통과 반응 자체를 입체적으로 복수화한다. 이 비교는 아말의 작품이 앞선 세대의 여성 문화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다처제와 여성 억압이라는 지속적인 문제를 새로운 목소리의 배열을 통해 다시 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지 않는 여자들』은 출간된 지 몇 년 안 된 작품이기 때문에 국내외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이다. 해외에서는 북아프리카 학자들의 논문이나 석사학위논문이 그나마 있는 편이고,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 공쿠르상 수상 이후로 인터뷰나 서평, 신문 기사들을 통해 관심이 증폭되었다. 이브라힘(Ibrahim)은 소설적 허구와 논증적 담론의 결합이 전통적 사회구조와 여성에게 부과된 억압에 맞서는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고 분석한다.¹⁰⁾ 장가(Zanga)는 발화 양태의 관점에서 남성 인물들의 담화가 명령, 설득, 복종 강요, 폭력을 수행하는 반면 여성 인물들의 발화에는 고통과 체념, 저항의 흔적이 새겨져 있음을 보여준다.¹¹⁾ 파르쥬(Farges)는 이 작품에 대한 간략하지만 종합적인 자신의 연구서에서 이 소설이 플라족들의 관습과 사고, 사회경제적 제도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지학적 소설(roman ethnographique)’이라는 점을 강조한다.¹²⁾ 반면 국내에서는 KCI 기준, 이 작품에 대한 학술 논문이나 단행본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 번역본 출간에 맞춰 작가가 한국을 방문하면서¹³⁾ 강연과 인터뷰, 신문 기사, 서평 등이 언론에 보도됐지만 심화 연구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10) Ibrahim, Laïth(2022), “*Les impatientes de Djaïli Amadou Amal : fiction et argumentation*”, *The French Review*, 96(1), 127-142.

11) Zanga, Antoine-Beauvard(2021/2022), “*Les modalités énonciatives dans Les Impatientes de Djaïli Amadou Amal : Une lecture sémantico-syntaxique*”, *Études Interdisciplinaires en Sciences humaines*, 8, 733-749.

12) Farges, Amandine(2021), *Analyse de l'oeuvre. Les impatientes de Djaïli Amadou Amal*, LePetitLittéraire.fr., 21-23.

13) 한국문학번역원이 주최하는 글로벌 문학축제 <2023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초청되며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 <https://www.siwf.or.kr/ko/author/list.do?nation=glob al&subjectYear=2023> (검색일: 2026.09.01.)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에서 진행된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하고 계승하면서, 카메룬 초판본에서 프랑스 신판으로 이어지는 소설 제목의 이동을 여성의 다성적 주체성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한 단계 더 심화시켜 읽고자 한다. 우리는 『참지 않는 여자들』의 서사적 운동을 ‘인내의 명령’과 ‘참지 않음의 목소리’ 사이의 긴장으로 파악한다. 본고에서는 ‘참음(Patience)’에서 ‘참지 않음(Impatience)’으로의 이동이 인내가 완전히 소멸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내라는 동일한 가부장적 명령이 세 여성의 삶에서 서로 다른 균열과 반향을 일으키며 ‘참지 않음’의 다성적 목소리로 어떻게 변주되는지 조명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조혼과 강제결혼, 부부 성폭력, 일부다처제가 여성의 신체와 언어를 어떻게 통제하고 탈주체화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동일한 규범 아래 놓인 람라, 힌두, 사피라가 각각 탈주, 광기의 표출, 양가적 균열이라는 상이한 방식으로 다성적 주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II. ‘인내’의 명령과 여성의 탈주체화

1. 조혼과 강제결혼: 여성 신체의 사물화

『참지 않는 여자들』의 판권면이 왼쪽에 위치한다면 오른쪽에는 “이 작품은 실제 사건들에서 영감을 받은 허구이다”(Amadou Amal, Djaïli 2020:7)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독자는 이로부터 이 소설이 상상으로 지어진 허구라기보다는 작가 자신이나 주변 여성들이 실제 겪은 일들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가는 본격적으로 독자를 작품 속으로 인도하기 전에 네 번에 걸쳐 ‘인내’와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 인용문을 제사(épigraphe)로 배치한다.

- a. “인내는 바위도 요리한다. La patience cuit la pierre.”(Amadou Amal, Djaïli 2020:7)
- b. “마음에 품고 있는 인내심은 고귀함과 비례한다. La patience d’un coeur est en proportion de sa grandeur.”(*Ibid.* 13)
- c. “인내의 끝에는 하늘이 있다. Au bout de la patience, il y a le ciel.”(*Ibid.* 91)
- d. “인내란 인내하면서 배워야 하는 하나의 기술이다. La patience est un art qui s’apprend patiemment.”(*Ibid.* 179)

a.는 풀라의 속담으로 책의 헌사 앞장에 위치하며 실질적으로 소설 전체의 제사로 기능한다. b.는 아랍의 속담으로 소설의 첫 이야기인 ‘람라’의 제사로 기능한다. c.는 아프리카의 속담으로 소설의 두 번째 이야기인 ‘힌두’의 제사로 기능한다. d.는 ‘그랑 코르 말라드(Grand Corps Malade)’¹⁴⁾의 자전적 작품 『환자들 *Patients*』에서 가져온 문장으로 ‘사피라’의 제사로 기능한다. 위와 같은 속담이나 격언은 파트릭 샤로도(Patrick Charaudeau)가 ‘탈화자적 양태(modalité délocutive)’라고 명명한 발화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¹⁵⁾ 속담이나 격언은 화자와 청자가 특정되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객관적·일반적 진리처럼 제시된다. d.는 익명의 전래 속담이 아니라 특정 저자의 인용문이지만 제사로 떼어 놓으면 이 문장은 구체적인 발화 맥락에서 분리되어 일반화된 격언

14) ‘Grand Corps Malade(‘크고 아픈 몸’이라는 의미)’는 Fabien Marsaud(1977-)의 예명으로 프랑스의 슬랩 시인이자 영화감독이다. 젊을 때 다이빙 사고로 척수 부상을 당해 부분 마비 판정을 받았으나 인내의 재활을 통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환자들 *Patients*』은 이 경험을 담은 그의 자전적 소설이다.

15) 샤로도는 의사소통 속 발화 양태를 다음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a. 청자 양태(modalité allocutive): 화자가 청자에게 명령, 질문, 호명 등을 통해 직접 작용하는 발화 양태, b. 발화자 양태(modalité élocutive): 화자가 자신의 입장, 감정, 판단, 의지 등을 드러내는 발화 양태, c. 탈화자적 양태(modalité délocutive): 화자와 청자가 표면적으로 발화에서 물러나고, 발화 내용 자체가 객관적 사실이나 일반적 진리처럼 제시되는 양태. Charaudeau, Patrick(1992), *Grammaire du sens et de l’expression*, Paris, Hachette, 569-629.

처럼 기능한다. 따라서 독자는 람라·힌두·사피라 개인의 1인칭 목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전통적으로,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진 ‘인내의 말’을 만나게 된다.

람라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아버지의 근엄한 말로 시작된다.

“참아라, 딸들아! 인내해라! 인내심이야말로 결혼생활과 인생의 유일한 가치다. (...)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내심을 품어라. 마음속에 새기고, 머릿속에 되뇌어라! 인내해라,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Amadou Amal, Djaili 2020:9)

속담과 같은 ‘탈화자적 양태’에서 출발한 소설은 본격적인 여성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청자 양태’로 전환된다. Zanga(2021/2022:739-740)의 지적처럼, 명령형 발화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지배를 보여주는 발화로, 소설에서는 혼인을 앞둔 이복 자매 람라와 힌두에게 가해지는 아버지라는 남성의 권위를 표현한다. 작품의 출발점에는 풀라 사회의 핵심 윤리로 제시되는 ‘무냐(munyal)’이 있다. ‘무냐’는 문자 그대로는 ‘인내’를 뜻하지만, 작품 속에서 그것은 여성에게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복종과 침묵의 명령으로 변형된다. 아버지의 말에서 인내는 개인의 덕목이 아니라 결혼한 여성이 반드시 체화해야 하는 명령이자 규범으로 제시된다. Zanga(2021/2022:738)에 의하면, 이 소설에서 ‘인내(patience)’라는 단어는 49번, ‘무냐’는 77번 반복된다. 결혼은 두 개인의 상호적 선택이나 애정의 결합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여성은 아버지의 권위에서 남편의 권위로 이양되며, 가족은 그 이양을 종교와 관습, 명예의 언어로 정당화한다. 아버지가 “이제부터 너희는 각자의 남편에게 속하니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거라”(Amadou Amal, Djaili 2020:20)고 선언하는 순간 여성의 주체적 지위는 소유관계의 언어로 치환된다.

17세의 람라는 50대 남자의 두 번째 부인이 되어야 한다. 람라는 집안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딸로서 학업을 마치고 약사가 되어 직업도 갖고 사랑하는 남자와 혼인하기를 꿈꾸는 소녀다. 하지만 가족은 그녀

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녀를 50대의 부유한 남자와 결혼시키기로 결정한다. 람라가 겪는 조혼(Mariage précoce)과 강제 결혼(Mariage forcé)은 특히 여성의 신체가 가족의 경제적 이익과 명예, 사회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자원으로 기능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반에 50명이었던 소녀들은 조혼으로 인해 마지막 학년이 되면 10명 정도 남는다(*Ibid.*:39). “아버지에게 최악의 죄는 그 딸이 간음을 당하는 것”(*Ibid.*:88)이기에 가능한 한 빨리 딸을 결혼시켜야 하는 것이다.

강제 결혼의 폭력은 혼인식 이전과 이후에 지속적으로 계속된다. 람라는 아버지에게 이슬람이 혼인에서 여성의 동의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느냐고 질문한다. 그녀는 종교의 언어를 거부하기보다 오히려 그 내부의 원칙을 호출하여 가족의 일방적인 결정에 맞선다. 작가는 람라를 통해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아니라, 종교적 권위와 가부장적 관습이 선택적으로 결합되어 여성의 의사를 무효화하는 방식을 비판한다. 또한 강제 결혼은 여성의 미래 시간 전체를 재배치한다. 람라는 결혼으로 인해 교육권과 자기 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동시에 박탈당한다. 따라서 여성 신체의 사물화는 단순히 ‘돈에 팔려 간다’는 경제적 비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기획하는 능력을 가족이 대신 행사하는 상태, 즉 미래에 대한 권리가 타인의 결정으로 대체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힌두의 경우 신체의 사물화는 더욱 노골적이다. 그녀는 결혼 직전 아버지의 발아래 엎드려 술 좋아하고 약까지 하는 사촌 무바락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반복해 호소하지만, 그 거부는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처리된다. “저는 무바락이 싫어요. 무바락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Ibid.*:99-100)라는 힌두의 간청은 네 번 연속 반복되지만,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힌두에게 목소리가 ‘없다’기보다, 목소리가 있어도 사회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람라가 남편이 보내 온 차를 타고 남편 집으로 가면서 “저를 구해 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 꿈과 희망을 앗아가려 해요, 제 삶을 훔쳐 가려 해요.”(*Ibid.*:90)라고

말하며 통곡하지만, 이 발화는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않고 혼인이라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발화는 존재하지만 결정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탈주체화는 침묵 이전에 이미 시작된다. 주체가 말할 수 있음에도 그 말이 행위의 결과를 바꾸지 못할 때, 여성의 언어는 사회적으로 비가시화된다.

따라서 조혼과 강제 결혼을 단순한 전통의 잔존으로만 읽는 것은 작품의 복잡성을 축소하는 것이다. 가족의 명예, 경제적 이해, 남성 친족의 권위, 여성 세대가 내면화한 생존 규범, 종교적 담론의 선택적 해석이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람라의 어머니는 딸의 고통을 알면서도 가족 전체의 명예와 다른 딸들의 미래를 이유로 결혼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 그녀는 자신과 다른 여성들도 같은 과정을 거쳤음을 상기시키며 람라의 주체적 선택을 원천 봉쇄한다. 이때 어머니가 주입하는 ‘무낱’은 폭력적 결정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감정적·윤리적 장치가 된다. 딸이 자신의 욕망을 주장하면 그것은 개인의 권리 요구가 아니라 어머니를 수치스럽게 하고 가족을 위기에 빠뜨리는 이기적 행위로 재해석된다.

이 구조에서 여성 신체는 ‘가족의 것’이라는 상징적 소유관계 안에 배치된다. 결혼은 여성을 한 남성에게서 다른 남성에게로 이동시키는 의례이며, 그 과정에서 여성 자신이 선택의 주체가 될 가능성은 최소화된다. 그러나 소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균열의 씨앗을 심는다. 람라와 힌두는 모두 결혼 전에 분명하게 거부를 발화한다. 비록 그 말이 즉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이 최초의 ‘아니오’는 이후 ‘참지 않음’의 목소리로 발전하는 서사적 출발점이 된다.

2. 부부간 폭력과 강간: 여성 침묵의 내면화

강제 결혼이 여성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제도적 폭력이라면, 힌두의 결혼생활은 그 박탈이 신체적·성적 폭력으로 연장되는 과정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결혼 첫날 밤, 무바락은 술과 비아그라에 취한 채 전혀

성경험이 없는 어린 힌두를 침대로 던지고 옷을 찢고, 그녀가 반항하자 때리기까지 한다. “하염없이 소리 지르고, 울고, 간청하며”(Ibid.:106) 그렇게 폭력적인 첫날 밤을 치른 힌두는 “몸에는 얻어맞은 상처가 났고, 멍과 어혈이 가득한”(Ibid.:106)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강간을 당한다. 이 사건에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폭력 자체뿐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공동체의 시선과 언어이다.

“이건 범죄가 아니다! 합법적인 행동이다! 부부 사이의 의무니까. (...) 이젠 강간이 아니다. 사랑한다는 증거다. (...) 의사 역시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젠 강간이 아니었으니까. (...) 거기다 누가 감히 ‘강간 viol’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었을까? 결혼 생활에 강간이란 없다.”(Ibid.:108-109)

힌두가 심각한 상처를 입은 뒤에도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범죄나 강간으로 명명하지 않고 부부의 의무와 사랑의 증거로 재해석한다. 오히려 피범벅이 되어 고통의 소리를 내지르는 힌두를 보고 사람들은 그녀의 순결을 축하한다. 신체가 이미 훼손된 뒤에도 피해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문제 제기나 보호 요청이 아니라 인내이다. 여기서 ‘무날’은 폭력 이후에 작동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로 기능한다. 폭력의 가해자는 남성이지만, 폭력을 정상화하는 담론은 가족과 의료적 시선, 종교적 훈계 등 여러 층위에서 반복된다. 따라서 힌두가 경험하는 부부 성폭력은 사적인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 승인 속에서 지속되는 구조적 폭력이다. Tchokothe(2021:214)가 지적한 것처럼, 힌두가 당한 신혼 첫날의 성폭력은 신체의 상처뿐 아니라 정신의 상처를 남기며,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상처일 뿐 정신적 외상은 그대로 남는다.

침묵은 이러한 폭력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폭력을 지속시키는 조건이다. 결혼식 날 백부 하야투는 람라와 힌두에게 부부 사이의 불쾌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말고 갈등을 비밀로 유지하라고 가르친다. 이 명령은 ‘가정을 지키는 현명함’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여성에게 피해 사실

을 외부에 말하지 못하게 하는 침묵의 규율이 된다. 폭력의 경험이 언어화되지 못하면 공동체는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무날’은 단순한 감정의 절제가 아니라 폭력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언어 침묵의 조력자가 된다. 힌두는 처음에는 반복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그녀를 다시 남편에게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귀결된다. 폭력의 원인조차 ‘네가 무엇을 했기에 남편이 그렇게 화를 냈느냐’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되돌린다. 어머니조차 “여자는 무엇보다도 아내이자 어머니로 태어난다”(Amadou Amal, Djaili 2020:139)고 말하며, 힌두에게 ‘무날’을 강요한다. 남편의 폭력과 강간이 결혼생활 내내 지속되자, 결국 남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싸여 힌두는 가출을 감행한다. “충분한 돈도 없이. 피신할 곳도 없이”, “가장 빨리 떠나기로. 여기서 먼 곳으로.”(Ibid.:155) 한 달 동안 지속된 가출은 삼촌에 의해 발각됨으로써 종지부를 찍는다. 아버지는 딸을 매질하고 자식을 망친 죄로 어머니까지 매질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힌두의 언어는 점차 소멸한다. 그녀가 말하지 않는 것은 본래부터 수동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해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침묵은 성격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의 결과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 침묵을 완전한 소멸로 남겨두지 않는다. 힌두는 결국 가족 앞에서 “더 이상 참기 싫어요. 지긋지긋해요. (...) 더 이상 절대 무날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Ibid.:155)라고 외친다. 이 발화는 작품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다. ‘인내’가 여성의 생존을 위한 미덕으로 제시되어 왔다면, 힌두에게 그것은 이제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연장하는 언어로 인식된다. 그녀가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를 통해 자신에게 강요되어 온 폭력의 세계이다.

그럼에도 힌두의 거부가 곧바로 존재의 해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다시 남편에게 돌려보내지고 지속적인 폭력의 상황 속에서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까지 경험하며, 결국 정신적 붕괴와 환각, 발작의 상태에 이른다. 이 점에서 작품은 여성의 ‘반항적인 목소리’를 낭

만적으로 과장하지 않는다. 저항의 언어가 존재한다고 해서 주체가 완전한 자유를 획득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힌두의 서사는 말의 무력함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하는 절박함을 동시에 드러낸다. 이러한 양가성이야말로 Ⅲ장에서 고찰할 다성적 주체성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3. 일부다처제: 여성에 의한 가부장적 규범의 재생산

일부다처제는 『참지 않는 여자들』에서 모든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전통이자 관습이자 제도로 제시된다. 특히 람라와 사피라는 한 남자를 공유하는 처지가 된다. 17세의 람라는 원치 않는 결혼을 통해 알하드지 이사(Alhadji Issa)의 두 번째 아내가 되었고, 첫째 부인인 사피라는 15세에 결혼해 35세가 될 때까지 여섯 자녀를 낳았지만 남편이 어린 아내를 들이자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 이때 작가는 일부다처제를 남성의 복수혼이라는 법적·관습적 제도에 한정하지 않고, 여성들 사이의 경쟁과 적대를 생산하는 감정적 구조로 묘사한다. 람라가 신혼집에 들어오는 순간 두 여성의 가족들은 이미 ‘두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를 경계한다. 여성 간 갈등은 개인적 성격의 충돌 이전에 제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셈이다.

남편은 이십 년 동반자였던 아내의 의견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아내를 들이겠다고 결정한다. 왜냐하면 그는 “일부다처제는 흔한 거야. 거기다 부부 생활에 균형을 잘 잡으려면 꼭 필요하기도 하고. 힘 있는 남자들은 죄다 아내를 여럿 두고 있어”¹⁶⁾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토록 긴 편지』에서 라마툴라이가 남편이 두 번째 아내를 들일 때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 가장

16) “La polygamie est normale et même indispensable pour le bon équilibre du foyer conjugal. Tous les hommes importants ont plusieurs épouses” (Amadou Amal, Djaïli 2020:200).

큰 분노와 고통을 느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¹⁷⁾ 40년이 지났어도 일부다처제의 여성들은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것이다. 남편의 논리는 일부다처제를 남성의 사회적 성공과 연결하면서 여성의 고통을 사적인 질투로 축소한다. 사피라에게 선택지는 남편의 혼인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결혼관계를 파탄내고 남편을 떠나는 것뿐이다. 즉 남성에게는 ‘선택하고 추가할 권리’가 있고 여성에게는 ‘견디거나 떠날 선택’만 남는다.

이 구조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가부장적 규범이 남성의 명령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범과 명령을 내재화해서 재생산하는 여성들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의 사랑을 어린 새 여자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노심초사하는 사피라에게 어머니는 “일부다처제가 여성에게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란다. 인내해라! 자중해라.”(Amadou Amal, Djaili 2020:209)라고 조언한다. 어머니 자신도 일부다처제의 폐해를 몸소 겪었고, 남편이 어린 아내를 들인 뒤 그의 사랑을 완전히 잃은 고통을 지금도 느끼며 살고 있는 여자였지만, 딸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되풀이하라고 한다. 이처럼 소셜 속 여성들은 자신이 과거에 감내한 규범을 다음 세대의 여성에게 그대로 전수한다. 이는 단순한 ‘공모’라기보다 제한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습득한 전략이 다시 규범으로 굳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부인으로서의 의무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여성의 미덕으로 제시될 때, 인내는 억압의 외부적 명령을 넘어 여성 스스로를 평가하는 내적 기준이 된다.¹⁸⁾

17) “남편에 대한 신뢰와 결혼에 대한 신화가 산산이 부서진 것은 그가 딸의 친구인 어린 여자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은밀하게 결혼식을 올린 것을 제삼자의 입을 통해 알게 되면서부터이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주체적 선택이 아니라 남편의 두 번째 결혼을 피동적으로 ‘당해야만’ 하는 객체의 삶으로 전락한다.” (오정숙 2023:302).

18)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는 사피라에게 첫 번째 부인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네가 이제 다다-사레(daada-saaré)네. (...) 책임이 무거워. 사피라, 다다-사레는 집안의 주인일세. 집안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건 자네의 공덕 덕분이지. (...) 그렇지만 반대로 가족에 불화가 있다면 그건 자네의 잘못 때문이네.

그러나 사피라는 그 규범에 완전히 순응하지 않는다. 그녀는 람라를 쫓아내고 남편의 애정을 되찾기 위해 종교적·주술적 수단, 금전, 정보, 가족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피라가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가부장제를 직접 공격하기보다 다른 여성을 공격하는 선택을 한다는 사실이다. 일부다처제는 여성에게 권력을 전혀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애정과 첫째 부인의 지위라는 제한된 권력을 제공하고 그 권력을 두고 여성들끼리 경쟁하게 만든다. 따라서 일부다처제의 가장 효과적인 지배 방식은 여성들을 동일한 피해자로 결속시키지 않고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있다. 람라에게 사피라는 자신을 미워하는 첫째 부인이며, 사피라에게 람라는 자신의 가정과 젊음을 빼앗는 침입자이다. 두 사람은 동일한 남성의 결정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고통의 원인을 서로에게 투사한다. 이때 여성적 규범의 재생산은 어머니가 딸에게 ‘참으라’고 말하는 수직적 세대 전승과, 공동의 아내들끼리 서로를 감시하고 경쟁하는 수평적 관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소설 후반부에서 이 적대에는 균열이 생긴다. 사피라는 람라의 고통과 진심을 접하면서 자신이 미워한 대상이 ‘람라라는 여성’이 아니라 ‘남편의 또 다른 아내’라는 위치였음을 자각한다. 그녀가 람라에게 사과하고, 람라가 떠난 뒤에는 오히려 그녀를 두둔하려는 모습은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변화이다. 이 변화는 일부다처제의 구조가 여성 연대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피해자로서의 서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노력하는 것도 첫째 아내고, 참고 버티내는 것도 첫째 아내야. (…) 인내하고, 인내해라...”(Amadou Amal, Djaïli 2020:188).

Ⅲ. ‘참지 앎’의 목소리와 다성적 여성 주체성

1. 람라: 탈주를 통한 자기결정의 목소리

세 여성 가운데 람라는 ‘참지 앎’을 가장 명시적으로 주체적 자기결정의 문제와 연결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가족의 결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알하드지 이사와 결혼하지만,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내면화하지 않는다. “학교에 실컷 드나들고 파리도 갈 만큼 교육받은 사람”(Ibid.:236)으로 지칭되는 람라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 교육까지 받은 여성이다. 교육의 경험과 독서는 람라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른 세계, 다른 가능성과 비교할 수 있는 언어와 꿈을 제공한다. 그녀가 약사가 되기를 꿈꾸고 사랑하는 남자와의 결혼을 꿈꿨다는 사실은 단순한 낭만적 욕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직업, 배우자, 거주 공간,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근대적 주체의 미래 기획으로 볼 수 있다.

람라의 목소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녀가 가족과 종교의 언어를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그 모순을 내부에서 드러내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 그녀는 아버지가 이슬람의 규범을 강조하면서도 여성의 혼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은 외면한다고 비판한다.¹⁹⁾ 이 발화에서 람라는 ‘전통 대 근대’, ‘종교 대 자유’라는 단순한 이분법에 서지 않는다. 오히려 남성 권력이 종교와 전통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폭로한다. 이러한 비판적 언어는 그녀가 물리적으로 남편의 집에서 탈주를 감행하기 이전부터 이미 정신적으로 가부장적 명령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⁰⁾

19) “Pourquoi ignores-tu délibérément ce précepte du Prophète qui stipule que le consentement d’une fille à son mariage est obligatoire?” (Ibid.:82)

20) “Comment est-ce possible? Être mariée à un homme de cinquante ans, moi qui, à dix-sept ans, était la fille la plus belle, la plus intelligente, la plus riieuse de la ville?” (Ibid.:81)

람라의 어머니와의 대화 역시 주체성 형성의 중요한 장면이다. 어머니는 가족의 명예와 경제적 안정을 근거로 딸을 설득하지만, 람라는 자신의 감정과 학업의 욕망이 왜 아무런 가치도 갖지 못하느냐고 질문한다.

“그렇지만 제가, 제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중요하지 않나요? 제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긴 한가요?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었어요.”(Ibid.:68)

이 질문은 가족 공동체에서 여성의 욕망이 갖는 위치를 문제 삼는다. ‘여성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물음은 람라의 주체성이 타인의 승인 이전에 자기 감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람라를 단순히 ‘능동적 저항자’로 이상화해서는 안 된다. 람라의 ‘참지 않음’은 즉각적인 반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결혼을 막지 못하고 결국 알하드지 이사와 결혼하여 그의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녀의 주체성은 억압적 구조 밖에서 완성된 자유가 아니라, 구조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거리두기로 표출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내’와 ‘참지 않음’은 완전한 대립항이 아니라 복잡하게 교차한다. 람라는 일정 기간 상황을 견디지만, 그 견딤은 규범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인내와 다르다. 그녀는 탈출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자신의 삶이 현재의 결혼으로 종결되지 않는다고 믿는다.

소설의 후반부에서 람라의 ‘참지 않음’은 ‘탈주’라는 행동을 통해 내적인 거리두기에서 공간적 거리두기 행위, 즉 적극적인 반항으로 표출된다. 람라가 탈주라는 극단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사피라의 음모와 책략이 외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남편의 애정을 되찾고 싶은 첫째 부인은 교묘하게 람라를 남편의 거액을 훔친 자로 몰아가고, 그녀에게 숨겨진 애인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만든다. 결국 남편의 분노 앞에서 람라는 유산을 하게 되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지만 남편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사피라가 람라를 간호하게 되면서 한 남자를 공유하는 두 여인

은 처음으로 서로 대면하게 된다. “여긴 우리뿐이에요. 지금만큼은 우리끼리 조금은 솔직해져도 되겠죠.”(*Ibid.*:271)라고 말하며 둘 사이의 벽을 먼저 허문 건 람라였다. 이어서 람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도 결혼식 날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저 희생양일 뿐이에요. (...) 전 당신의 적이 되겠다고 결정한 적도, 당신의 남편을 빼앗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없어요.”(*Ibid.*:272)

람라의 이런 고백은 본의 아니게 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두 여성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전환점이 된다. 사피라 역시 “내가 착각했어, 람라. 용서해줘요!”라고 말하며 처음으로 이 어린 여자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 작가는 람라가 탈주를 감행하기 전에 두 여성 인물을 만나고 대화하게 함으로써 일부다처제의 희생양이었던 두 여성의 연대와 우정의 가능성을 살며시 제시한다.²¹⁾ 람라가 탈주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피라는 한편으론 후련했지만 죄책감에 남편에게 찾아가 그녀는 좋은 여자이니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한다.

람라는 알하드지 이사에게 편지 한 통만을 남기고, 자신이 쓰던 컴퓨터만 챙긴 채 야간 경비를 뚫고 홀연히 사라진다. 여기서 편지는 중요한 장치이다. 람라는 단순히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떠난다’는 사실을 언어로 남긴 것이다. 그녀는 남편에게 ‘버려진 여성’이 아니라 먼저 ‘관계를 떠나는 주체’가 된다. 남편이 이후 사회적 체면을 지키기 위해 람라를 자기가 먼저 내쫓는다는 편지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오히려 람라의 선행적 선택이 남성 권위를 얼마나 흔드는지를 보여준다. 람라와 사피라 사이의 속내 이야기, 그리고 람라가 남긴 편지는 모두 언어적 행위이다. Tchokothe가 정신분석의 용어로 적절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21) “람라가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둘이 속내를 털어놓은 뒤로, 우리 사이에는 우정이 싹터 있었다.”(*Ibid.*:277)

럼(2021:216), 람라의 이러한 언어적 행위는 종교와 전통의 미명 아래 형성된 무의식 속에 억압돼 있던 트라우마와 외상을 치유해주는 “언어에 의한 치료(thérapie par la parole)”라고 할 수 있다.

람라의 탈주는 공간이동 자체보다 자기 결정권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혼 당시 그녀의 신체는 가족에 의해 이동되었지만, 소설의 끝에서 그녀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이동시킨다. 처음의 이동이 아버지의 집에서 남편의 집으로 이루어진 타율적 이동이었다면, 마지막 이동은 남편의 집에서 불확정한 미래로 향하는 자율적 이동이다. 목적지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주체성은 안전한 결말의 확보가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자신이 선택하려는 행위로 나타난다. 이 점에서 람라의 목소리는 ‘참지 않음’의 가장 가시적인 형태를 구성한다. 그러나 작가는 람라의 방식을 유일한 여성 해방의 모델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람라는 다른 많은 여성들에 비해 교육이라는 사회적 자원을 갖고 있다. 힌두에게는 같은 방식의 탈주가 훨씬 더 어렵고, 사피라에게는 첫째 부인의 지위가 이미 삶의 정체성과 깊이 결합되어 있다. 여성들의 주체적 다성성은 바로 이 조건의 차이에서 시작된다.

2. 힌두: 광기로 표출되는 고통과 분노의 목소리

힌두의 서사는 람라의 탈주와 대조적으로 ‘참지 않음’이 반드시 성공적인 자기결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힌두는 작품의 시작부터 무바라과의 결혼을 가장 격렬하게 거부한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울고 매달리고 도망치려 하지만, 그 행동은 모두 무효화된다. 결혼 이후에는 성폭력과 구타가 반복되고, 친절로 돌아가 도움을 청하는 시도 역시 실패한다. 힌두 역시 한 달 동안 가출을 감행했었지만 결국 발각돼 남편에게 잡혀 온다. 힌두에게 문제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의지를 현실적 선택으로 바꾸어 줄 사회적 통로가 차단

되어 있다는 데 있다.

힌두의 서사에서 가장 강력한 순간은 앞서 인용한 “더 이상 참기 싫어요. 더 이상 절대 무날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라는 절규이다. 이 발화는 람라의 논리적 질문과 다른 성격을 갖는다. 람라가 가족과 종교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자기 결정권을 주장한다면, 힌두는 견딜 수 없는 신체의 한계에서 언어를 폭발시킨다. 따라서 그녀의 목소리는 합리적 논증의 목소리가 아니라 고통의 신체가 만들어내는 절규이다.

바로 이 차이가 다성적 주체성의 핵심이다. 여성의 저항을 교육받은 여성의 합리적 언어만으로 정의한다면 힌두의 경험은 다시 주변화되고 소외될 수 있다. 힌두의 파편화된 말, 울음, 발작, 환각은 완성된 저항의 담론은 아니지만, 그 자체로 폭력의 심각성과 잔인함을 증언한다. 말이 무너지는 지점에서 오히려 폭력의 언어화 불가능성이 드러난다. ‘광기로 표출되는 분노의 목소리’라는 표현은 따라서 광기를 저항의 능동적 전략으로 이해하기보다, 제도적 폭력이 여성의 언어를 붕괴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고통이 완전히 침묵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힌두의 정신적 붕괴를 곧바로 ‘저항의 광기’라고 미화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녀의 광기는 먼저 지속적인 폭력과 고립이 남긴 외상의 결과이다. 사람들은 힌두가 변했고 미쳤고 위험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힌두는 다음과 같이 소리 없이 외친다.

“나는 미치지 않았다. (...) 온 집안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무날, 무날, 인내해라! (...) 당신들한테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 아니, 난 미치지 않았다. 당신들은 대체 왜 내가 숨을 못 쉬게 막는 거지? 당신들은 대체 왜 내가 살지 못하게 막는 거지?”
(Amadou Amal, Djaili 2020:177)

힌두 자신은 타인들이 미쳤다고 판단하는 행동이 자신에게는 살기 위해 숨을 쉬려는 행위로 인식한다. 이 대목에서 광기는 개인의 비정상성이 아니라 정상성을 독점한 공동체의 시선과 충돌한다. 폭력에서 벗어나 숨

쉬려는 행위가 ‘광기’로 명명될 때,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 자체가 가부장적 질서에 의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Zanga(2021/2022:748-749)는 이 소설의 발화 양상이 내재적·외재적 “이중 폭력(double violence)”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성의 발화가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고 복종시키는 양태를 취하는 반면, 여성의 발화에는 고통과 체념, 훼손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본다. 힌두는 이러한 이중 폭력이 가장 극단적으로 구현된 인물이다. 작가는 현실 속에서 효력을 갖지 못한 힌두의 말을 서사의 중심 목소리로 배치한다. 사회적으로 무효화된 목소리가 문학적으로는 독자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역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적 역전은 이 소설의 다성성이 갖는 윤리적 의미를 보여준다. 공동체 내에서 힌두는 ‘문제를 일으키는 아내’, ‘민감한 여자’, ‘미친 여자’로 호명되지만, 독자는 그녀의 1인칭 서사를 통해 사건을 그녀의 내부에서 경험한다. 사회적 명명과 자기 경험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독자는 광기라는 진단보다 그 광기를 만들어낸 폭력의 연쇄를 같이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힌두의 ‘참지 않음’은 람라의 탈주보다 비극적이고 불완전하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성이 여성 주체성을 정해진 규범 속에 가두지 않는다. 아말은 피해 여성에게 언제나 ‘용감하게 떠나라’고 요구하는 또 다른 규범을 제시하지 않는다. 어떤 여성은 떠날 수 있고, 어떤 여성은 무너진다. 그럼에도 무너진 여성의 고통 역시 하나의 목소리로 인정된다. 힌두의 서사는 여성 주체성을 자유롭고 자율적인 개인의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억압 속에서도 자신의 고통을 자기 언어로 드러내는 과정으로 확장한다.

3. 사피라: 양가성을 통한 균열의 목소리

사피라는 세 인물 가운데 가장 복합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녀는 람라와 힌두처럼 결혼 자체를 거부하는 젊은 여성이 아니라, 오랜 결혼생활을 통해 첫째 부인의 지위를 확보한 여성이다. 따라서 사피라에게 가

부장적 질서는 억압의 체계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오랫동안 투자해 얻은 사회적 위치의 기반이기도 하다. 남편의 재혼은 그 기반을 흔들며, 사피라는 제도를 거부하기보다 제도 내부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한다. 이 때문에 사피라의 ‘참지 않음’은 처음에는 여성 연대가 아니라 경쟁으로 나타난다. 그녀 역시 힌두처럼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지만, 그 거부의 방향은 전혀 다르다. 힌두가 폭력적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무냐를 거부한다면, 사피라는 남편의 사랑과 첫째 부인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무냐를 거부한다. 동일한 ‘참지 않음’이 하나는 생존의 요구로, 다른 하나는 제도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나타난다.

사피라의 양가성은 여기에서 분명해진다. 그녀는 일부다처제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람라를 공격하는 가해적 행위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그 가해성을 개인의 악의로만 설명하면 일부다처제가 만들어내는 구조를 놓치게 된다. 사피라가 지키려는 것은 단지 남편의 애정이 아니라 오랜 결혼생활을 통해 구축한 정체성, 경제적 안정, 가정 내 권위, 사회적 존중이다. 사피라는 남편의 사랑을 되찾고 둘째 아내를 쫓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가해 행위를 일삼는다. 하지만 이 행동성을 곧바로 해방적 주체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그녀의 전략은 남성 중심의 제도를 바꾸지 않고 그 제도 안에서 우위를 회복하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피라의 주체성은 ‘양가적’이다. 그녀는 수동적 피해자도 아니고, 가부장제를 넘어선 자유로운 주체도 아니다.

소설 후반부에서 사피라가 람라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이러한 양가성이 변화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신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자신을 미워했냐는 람라의 물음에, 사피라는 자신이 미워한 것은 람라 개인이 아니라 ‘남편의 아내’라는 위치였음을 고백한다. 이 순간 두 여성 사이의 적대는 구조의 인식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경쟁자의 얼굴 뒤에서 또 다른 피해 여성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피라의 주체성은 여전히 양가적이다. 그녀는 타인을 해쳤고, 자신의 지위를 위해 가부장적 규범을 활용했으며, 동시에 그 규범 때문

에 고통받았다. 비록 람라에게 연민과 죄책감을 느꼈지만, 곧 또 다른 결혼을 준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아내가 들어오건 간에, 난 맞서 싸울거다”(Amadou Amal, Djaïli 2020:283)라고 다짐한다.

람라가 자기결정의 언어를, 힌두가 고통과 분노의 언어를 대표한다면, 사피라는 체제 내부에서 살아남은 여성의 모순된 언어를 대표한다. 세 목소리는 서로를 보완하지만 하나의 도덕적 결론으로 합쳐지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Les Impatientes*라는 제목의 복수형은 중요하다. ‘참지 않는 여자들’은 하나의 동일한 주체가 아니다. 람라의 ‘참지 않음’은 탈주로, 힌두의 ‘참지 않음’은 언어의 소멸과 광기로, 사피라의 ‘참지 않음’은 경쟁과 책략, 뒤늦은 공감의 균열로 나타난다. ‘인내’의 명령은 하나였지만 그것을 받는 여성들의 삶은 하나가 아니며, 따라서 ‘참지 않음’ 역시 하나의 형식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여기서 ‘다성적 여성 주체성’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다성성은 단순히 화자가 세 명이라는 형식적 사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규범인 ‘무날’이 세 인물의 의식 속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획득하고 그 의미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가부장적 담론의 단일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의미한다. 마리아마 바의 작품에서 중심 목소리가 라마톨라이였다면 아말의 소설에서는 세 여성의 목소리가 복수적으로 배열된다. 이 복수성은 ‘아프리카 여성’을 하나의 피해자 범주로 일반화하지 않고, 교육, 연령, 혼인 관계, 경제적 위치, 가족 내 지위에 따라 달라지는 여성의 경험과 인식을 내부로부터 분화시킨다.

따라서 제목의 변화, 즉 『무날, 인내의 눈물』에서 『참지 않는 여자들』로의 이동은 규범의 단수성에서 주체의 복수성으로 이동하는 상징적 변환으로 읽을 수 있다. 카메룬 초판 제목의 중심에는 ‘무날’이라는 규범이 있고, 프랑스판 제목의 중심에는 그 규범에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여성들이 있다. ‘인내’가 사회가 여성에게 부여한 일방적인 명령이라면, ‘참지 않는 여자들’은 여성들의 행위와 목소리를 통해 구성되는 복수적 주체이다.

IV. 결론

본고는 자일리 아마두 아말의 『참지 않는 여자들』을 관통하는 ‘무날(munyal)’이라는 인내의 명령과 이에 대응하는 여성들의 ‘참지 않음’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조혼과 강제 결혼, 부부 성폭력, 일부다처제라는 가부장적 제도와 관습 속에서 여성이 탈주체화되고 다시 자신의 목소리를 획득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작품의 서두와 세 여성의 이야기 앞에 배치된 인내에 관한 속담과 격언, 인용문과 같은 ‘탈화자적 발화 양태’는 인내를 개인의 선택을 넘어 오랜 시간 전승되어 온 보편적 지혜이자 사회적 가치처럼 제시한다. 이때 ‘무날’은 더 이상 중립적인 윤리적 덕목이 아니라 여성에게만 복종과 침묵, 희생을 요구하는 젠더화된 규범으로 기능한다. 조혼과 강제 결혼은 여성의 신체뿐 아니라 교육과 직업, 배우자와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고, 부부 성폭력은 ‘아내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정상화하며, 일부다처제는 남성의 권리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여성들 사이의 경쟁과 갈등을 유발한다. 이처럼 ‘무날’은 여성의 신체와 언어를 동시에 통제함으로써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담화 장치로 작동한다.

그런데 자일리 아마두 아말의 소설은 ‘람라, 힌두, 사피라’라는 세 여성을 동일한 명령과 억압의 피해자로 단순하게 환원하지 않는다. 람라는 교육을 통해 획득한 자기결정의 언어로 가족과 종교적 권위의 모순을 질문하고, 마침내 탈주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다시 선택한다. 반면 힌두의 ‘참지 않음’은 성공적인 주체성 회복으로 귀결되지 않는다. 지속되는 성폭력과 구타 속에서 그녀의 언어는 절규와 광기로 붕괴하지만, 작가는 바로 그 붕괴된 목소리를 서사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공동체에서 ‘미친 여자’로 명명된 여성의 고통을 내부로부터 발화하게 한다. 따라서 힌두의 광기는 그 자체가 저항이라기보다 폭력이 한 인간의 정신과 언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드러내는 비극적 증언이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무효화된 여성의 목소리를 문학적으로 복원하는 장치가 된다.

한편 사피라는 가부장적 제도의 피해자인 동시에 그 규범을 내면화하고 재생산하는 첫째 부인이라는 가장 양가적인 위치에 놓인다. 남편의 두 번째 아내인 람라를 향했던 그녀의 질투와 적대는 두 여성이 서로를 동일한 제도의 피해자로 인식하면서 조금씩 균열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람라의 자기결정과 탈주, 힌두의 침묵과 광기, 사피라의 양가적 주체성은 하나의 이상적인 여성 주체로 수렴되지 않는다.

바로 이 차이에서 『참지 않는 여자들』의 다성적 여성 주체성이 형성된다. 그것은 단순히 세 명의 1인칭 화자가 존재한다는 형식적 복수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권위적 명령인 ‘무날’이 서로 다른 삶의 조건에 놓인 세 여성의 의식 속에서 상이한 의미를 획득하고, 그 목소리들이 서로 충돌하고 반향하면서 가부장적 담론의 단일성을 해체하는 과정이 이 작품의 다성성을 구성한다. 람라의 ‘참지 않음’이 탈주로, 힌두의 ‘참지 않음’이 절규와 광기로, 사피라의 ‘참지 않음’이 경쟁과 책략, 그리고 뒤늦은 공감의 균열로 나타난다는 점은 여성의 주체성이 하나의 전형적인 저항 방식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2017년 카메룬 초판의 제목 『무날, 인내의 눈물』에서 2020년 프랑스판 『참지 않는 여자들』로의 이동은 단순한 출판상의 제목 변경을 넘어, ‘인내’라는 규범의 수동적 단수성에서 ‘참지 않는 여성들’이라는 주체의 복수성으로 이동하는 상징적 변환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이 형상화하는 여성의 현실은 허구의 세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UNICEF(2024)에 따르면 서·중부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조혼이 가장 광범위한 지역 가운데 하나로, 서·중부 아프리카의 20~24세 여성 가운데 32%가 18세 이전에, 11%가 15세 이전에 결혼했으며 세계에서 조혼율이 가장 높은 10개국 가운데 6개국이 이 지역에 위치한다. 이러한 통계는 조혼과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는 람라와 힌두의 이야기가 예외적인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는 구조적 현실의 문학적 형상화임을 보여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일리 아마두 아말의 문학과 사회적 실천은 만난다. 자신 역시 조혼, 강제 결혼, 가정폭력

을 경험했었기에, 그녀에게 글쓰기는 개인적 상처를 서사화하는 동시에 침묵당한 여성들의 경험을 공적 언어로 전환하는 행위였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강제 결혼으로 인한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뒤 글쓰기에서 치유의 힘을 발견하고, ‘목소리 없는 여성들의 목소리(la voix des sans voix)’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²²⁾ 아말은 2012년 ‘사헬의 여성들(Femmes du Sahel)’²³⁾을 설립하여 카메룬 북부를 중심으로 여성과 소녀들의 교육과 자립을 지원해 왔으며,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 지원, 도서관과 독서·글쓰기 프로그램,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말은 현실의 폭력을 고발하는 작가인 동시에 자신의 문학적 문제의식을 현실의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러한 아말의 행보는 문학이 현실을 재현하고 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의 변화를 촉발하는 사회적 실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지 않는 여자들』의 중요한 성취는 ‘고통받는 아프리카 여성’을 외부 세계에 보여주었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그동안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말할 수 없었던 경험에 언어를 부여하고, 여성에게 ‘참아야 할 일’로 요구되었던 강제 결혼과 성폭력, 일부다처제의 고통을 다시 폭력과 권리의 문제로 명명했다는 데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다. 결국 『참지 않는 여자들』에서 ‘참지 않음’은 인내의 단순한 반대말이 아니다. 그것은 침묵을 깨는 말이며, 자신의 고통을 폭력이라고 다시 명명하는 말이고, 타인이 정한 삶의 경로에서 이탈하는 행위이며, 때로는 모순되고 불완전한 방식으로라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몸짓이다. 바로 이 점에서 『참지 않는 여자들』은 ‘인내하는 여성’이라는 단일한 규범적 주체를 해체하고, 서로 다른 형태로 ‘인내를 거부하는 복수의 여성 주체’

22) Jean Bruno Tagne와의 인터뷰에서 아말은 이렇게 말한다. “Depuis mes débuts en 2010, je me suis promis quand même d’être la voix des sans voix.” NAJA TV(2020.11.29.), Amadou Amal, Djaili: “La littérature m’a sauvé la vie.” (<https://www.youtube.com/watch?v=4WP7IBQrVRE> 검색일:2026.08.02.)

23) <https://femmesdusahel.org> (검색일:2026.09.02.)

를 문학의 장에 출현시킨다. 그리고 이 복수형은 소설 속 람라, 힌두, 사피라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참지 않는 여자들’은 침묵에서 발화로, 강요된 인내에서 자기결정으로 이동하고 있는 사헬의 수많은 여성들을 향해 열린 복수형이며, 아말의 문학은 그 복수의 목소리를 현실의 변화로 이어주는 하나의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Ⅰ 참고문헌

1. 자일리 아마두 아말의 작품, 인터뷰, 강연

자일리 아마두 아말(2023), 장한라 옮김, 『참지 않는 여자들』, 울리시즈.

자일리 아마두 아말 · 이소훈 · 권서영 · 김지은(2024), 「젠더 폭력적인 문화에 저항하는 문학의 힘: 아프리카 페미니스트 문학 작가에게서 듣는 여성학 의제와 국제연대의 방향」(인터뷰), 『한국여성학』 40(4), 한국여성학회, 47-52.

자일리 아마두 아말(2023), 「아프리카의 『참지 않는 여자들』: 사헬 지역 여성들이 직면한 고난과 도전」, 아아: Asia&Asias(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온라인 매거진), <https://snuacwebzine.snu.ac.kr/?p=6549> (검색일:2026.08.21.)

Amadou Amal, Djaïli(2017), *Munyal, les larmes de la patience*, Yaoundé: Proximité.

Amadou Amal, Djaïli(2020), *Les Impatientes*, Paris: Emmanuelle Collas.

NAJA TV(2020.11.29.), Amadou Amal, Djaïli : “La littérature m’a sauvé la vie.”(인터뷰). (<https://www.youtube.com/watch?v=4WP7IBQTVRE> 검색일:2026.08.02.)

2. 자일리 아마두 아말에 대한 연구 (논문, 단행본, 언론 기사 등)

오경민, 「서아프리카 여성들이 처한 잔혹 현실」, 『경향신문』, 2023.3.10.

Bouras, Rayen & Tabet, Hadjer(2023), *Noces polyphoniques dans Les Impatientes de Djaïli Amadou Amal*, mémoire de Master, Université Mohamed Seddik Ben Yahia-Jijel.

Farges, Amandine(2021), *Analyse de l'oeuvre. Les impatientes de Djaïli Amadou Amal*, LePetitLittéraire.fr.

Hayatou, Daouda(2024), “L’inscription du corps féminin dans l’institution polygamique chez Djaïli Amadou Amal”, *Revue d’Etudes Africaines*,

N° 4, 169-176.

Ibrahim, Laïth(2022), “*Les impatientes* de Djaïli Amadou Amal : fiction et argumentation,” *The French Review*, 96(1), 127-142.

Le Quellec Cottier, Christine(2022), “Circulations éditoriales. Enjeux de la réception française du roman de Djaïli Amadou Amal, *Les Impatientes*,” in Christine Le Quellec Cottier & Valérie Cossy (dir.), *Africana. Figures de femmes et formes de pouvoir*, Paris: Classiques Garnier, 495-512.

Nana Nguegong épouse Zébazé, Nicole(2023), “La position controversable du personnage féminin face à l’oppression masculine dans *Les impatientes* de Djaïli Amadou Amal”, *Les Cahiers de l’ACAREF*, Tome 1, 195-208.

Poblete, Maria(2024), *Djaïli Amadou Amal : Non aux mariages forcés*, Actes Sud.

Tchokothe, Rémi Armand(2021), “Mariama Bâ et Djaïli Amadou Amal : Une si Longue Lettre des (Im)patientes,” *HYBRIDA*, 2, 201-224.

Zanga, Antoine-Beauvard(2021/2022), “Les modalités énonciatives dans *Les Impatientes* de Djaïli Amadou Amal : Une lecture sémantico-syntaxique,” *Études Interdisciplinaires en Sciences humaines*, 8, 733-749.

3. 기타 연구 및 인터넷 사이트

오정숙(2023), 「아프리카 여성 문학을 통해 본 일부다처제와 여성 인권: 마리아마 바와 켄 부굴을 중심으로」, 『프랑스어권 문화예술연구』 86, 프랑스문화예술학회, 295-323.

Bâ, Mariama(1979), *Une si longue lettre*, Dakar: Les Nouvelles Éditions Africaines du Sénégal.

Bakhtine, Mikhaïl(1970), *La Poétique de Dostoïevski*, traduit du russe par Isabelle Kolitcheff, Paris: Seuil.

Charaudeau, Patrick(1992), *Grammaire du sens et de l'expression*, Paris: Hachette.

UNICEF(2024), Issue Brief: Adolescent Girls in West and Central Africa, UNICEF West and Central Africa Regional Office.

<https://www.britannica.com/place/Sahel> (검색일: 2026.08.20.)

<https://femmesdusahel.org> (검색일:2026.08.25.)

<https://www.siwf.or.kr/ko/author/list.do?nation=global&subjectYear=2023>
(검색일: 2026.09.01.)

❖ ABSTRACT

From the Injunction of Patience to the Voices of
Impatience: Polyphonic Female Subjectivity in Djaïli
Amadou Amal’s *Les Impatientes*

OH, Jung Sook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Djaïli Amadou Amal’s *Les Impatientes* (2020), focusing on *munyal*—the injunction of patience imposed on women in the Sahel—and on the diverse female voices that emerge in response to it. In the novel, *munyal* functions as a gendered norm that demands submission, silence, and sacrifice while legitimizing early and forced marriage, marital rape, and polygamy. Yet Amal does not portray her three protagonists, Ramla, Hindou, and Safira, simply as victims of the same oppression. Ramla asserts her self-determination by escaping a forced marriage. Hindou gives voice to her pain and anger amid the psychological breakdown and madness caused by relentless violence. Safira internalizes and reproduces patriarchal norms while also exposing the fissures within them. The novel’s polyphony, therefore, lies not simply in the presence of three first-person narrators. Rather, it emerges from the different ways in which the women experience and reinterpret *munyal*, and thereby disrupts the monologic authority of patriarchal discourse. The change in the novel’s title from *Munyal, les larmes de la patience* to *Les Impatientes* thus marks a shift from the singular injunction of patience to the plurality of women who refuse to endure it. By transforming the experiences of silenced women into public

discourse, Amal's writing demonstrates literature's potential to reclaim female subjectivity and promote social change.

Keywords: Djaili Amadou Amal, *Les Impatientes*, munal, polyphony, female subjectivity, women in the Sahel

■ 논문투고일 : 2026. 09. 09

■ 심사완료일 : 2026. 10. 05

■ 게재확정일 : 2026. 10. 09